

借字表記 ‘只’ 字에 대하여

裴 大 溫*

이 글은 借字表記에 있어 특히 音節未子音體系에 대한 것을 살피기 위한 한 부분의 글이다. 여기서는 ‘只’字를 中心으로 살피기로 한다.

I. 只

‘只’字에 대한 漢音으로 上古音과 中古音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上古音 k̄jɛg(董), t̄jɛg(k), tjier(周)

中古音 t's'iēg(k), ts'ir(周)

董同龢의 上古音 [k̄jɛg]를 제외하고는, 우리 음으로 代用될 때 ‘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只’字의 切韻系音은 아래와 같이 ‘지’임을 알 수 있다.

只 諸氏切(唐韻)(正韻)

掌氏切(集韻)(韻會)

章移切(廣韻)

그런데 앞에서 보인 董同龢가 再構한 ‘只’字 上古音이 [k̄jɛg]이고 보면, ‘기’로 代用시킬 수 있는 바, 中·上古音을 통털어 보면 ‘디·기·지’로 볼 수 있게 된다.

梁柱東, 김선기 교수가 ‘只’字를 ‘디·지·기’의 互轉으로 본¹⁾ 까닭도 위와 같은 데서 말미암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只’字가 과연 ‘디·지·기’ 세 가지 소리를 다 드러내고, 더 나아가 흔히 通音略借라 하는 ‘기’까지

* 慶尙大學校 教授

1) 梁柱東, 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43).

김선기, 향가의 새로운 풀이(現代文學 145~205, 1967~1975).

2 嶺南語文學(第13輯)

합하면 사실상 네 가지의 소리를 ‘只’字 하나로表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음에 ‘只’字의表記實態를 살펴 이에 관한 사실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1. 鬻立縣本只番縣(史記34, 地理1)
- 東畿停本毛只停(史記34, 地理1)
- 支壽縣本只三村(史記37, 地理4)
- 多岐縣本百濟多只縣(史記36, 地理3)
- 伎伐浦一作只火浦(遺事1, 太宗春秋公條)
- 祇沓一作只他(遺事1, 赫居世王條)
- 同福縣本百濟豆夫只縣(史記36, 地理3)
- 張保臯(羅紀作弓福)(史記44, 列傳4)

위 예에서 ‘只’字는 ‘鬻·畿·支·岐·伎·祇’ 등의 字와 對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只’字가 語頭に 쓰인 용례도 볼 수 있다. 따라서 地名, 人名等 固有名詞表記에서는 ‘只’字가 ‘지·기’로 읽혔음을 짐작하는 데 어렵지 않다.

그런데 ‘豆夫只=同福’, ‘弓福=保臯’에서 이들은 같은 語形을表記한 것으로 보아 CVCV形의 音節構造로 볼 것인지, 아니면 古代國語에서 入聲韻尾의 실현을 인정하여 CVC形과 CVCV形이 並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용례도 마찬가지다.

- 金海小京古金官國(一云伽落國一云伽耶(史記34, 地理1))
 朔邑縣本高句麗所邑豆縣(史記35, 地理2)
 寶城郡本百濟伏忽郡(史記36, 地理3)

1. 2. 鄉札資料에서 ‘只’字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삼아 이른바 均如傳에 수록된 것부터 보이기로 한다.

- ① 法界毛叱所只至去良(禮敬)
- ② 切德叱身乙對爲白惡只(稱讚)
- ③ 必只一毛叱德置(稱讚)
- ④ 手焉法界毛叱巴只爲旆(廣修)
- ⑤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懺悔)
- ⑥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 ⑦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
- ⑧ 緣起叱理良尋只見根(隨喜)

- ⑨ 佛伊衆生毛叱所只(//)
- ⑩ 吾焉頓叱進良只(請轉)
- ⑪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請轉)
- ⑫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常隨)
- ⑬ 他道不冬斜良只行齊(//)
- ⑭ 大悲叱水留潤良只(恒順)
- ⑮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普皆)

①의 경우는 ④⑨와 더불어 同一語辭로 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只’字는 語末終聲 ‘ㄱ’를 위한 表記로 보는 것이 鄉歌解讀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다.²⁾

②의 ‘對爲白惡只’은 ‘옥기’(梁柱東)를 제외하고는 모두 ‘只’字를 終聲 ‘ㄱ’으로 풀고 있다.

③⑤⑥의 경우는 예의 없이 ‘只’字가 終聲 ‘ㄱ’表記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⑦의 ‘遣只’에 대해서 ‘只’字는 ‘以’字의 轉訛로 보는 견해(金完鎭)를 제외하고는 모두 ‘只’字를 終聲 ‘ㄱ’으로 풀었다. ⑧의 ‘尋只’에 대해서는 좀 구구한 편이다. ‘차지’(梁柱東), 그리고 ‘찾’으로 보고 ‘찾’이 ‘착’으로 발음된 것으로 본 예(金俊榮)도 있다. 그 외는 모두 ‘차작’(金完鎭·俞昌均)으로 풀었다. ‘尋只’語辭에 대한 解讀에 덧붙여 말하면 ‘尋’字는 訓借된 것이다.

尋 촛줄(십)(類合下61b)(千字31b)

길흔 촛자(釋譜6:19)

소리물 촛자샤(楞嚴6:66)

그를 촛자나(圓覺上1:90)

위 15세기 국어표기를 참고할 때 ‘尋’字의 訓을 ‘촛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原形을 ‘촛一’로 보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되면 ‘尋只’의 ‘只’字는 ‘ㄱ’終聲을 表記하기 위한 것이니, 결국 ‘尋只’는 ‘촛죽’정도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2) 梁柱東, 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43).
 俞昌均, 鄉歌의 「只」字 表記에 대하여(清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1973).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研究(啓明大 韓國學研究所, 1979).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서울대 出版部, 1980).
 金俊榮, 鄉歌文學(螢雪出版社, 1983).

4 嶺南語文學(第13輯)

⑩의 경우는 예외 없이 모두 ‘ㄱ’終聲表記字로 다루었다.

⑪의 경우는 ‘지’(梁柱東)로 읽는 외에는 모두 ‘ㄱ’表記로 보았다.

⑫의 ‘身靡只’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주장이 많다. ‘모미’로 읽어 ‘只’字를 虛字로 처리한(梁柱東) 경우와, ‘靡’字를 ‘身’字의 訓 ‘몸’의 末音添記 ‘ㅁ’으로 보고, ‘只’字는 名詞性接尾辭로 처리하여 [momki](俞昌均)로 읽기도 했다.

‘身靡只’에 대한 筆者의 입장을 이미 간단히 언급한 바도 있지만³⁾ 다시 한 번 덧붙이기로 한다. ‘靡’字는 音借 ‘미’로서 ‘身’字의 訓 ‘몸’의 末音 ‘ㅁ’과 主格助詞 ‘이’를 동시에 충족시킨 것으로 借字表記가 실제의 소리를 轉寫함에 있다고 할 때 조금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모미’로 읽어야 할 것이며, ‘只’字는 主格 ‘이’의 強勢를 위한 것으로 ‘모딕’으로 읽혀야 할 것이다. 이는 吏讀文의 主格強勢形 吏讀助詞 ‘ㄱ’只(익)⁴⁾을 생각할 때 더욱 확실해 지리라 믿는다.

⑬⑭⑮에 대한 諸家の 견해는 모두 같다. 以上 均如傳의 鄉歌에 보이는 ‘只’字에 대한 諸家の 풀이를 견주어 보았는 바 대체로 終聲 ‘ㄱ’를 表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한두 곳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均如傳의 鄉歌가 同一人에 의한 表記이고 보면 같은 글자를 가지고 두 세 가지의 소리를 동시에 表記하고자 했을 리가 없으리라 본다. 더욱이나 均如傳에서 ‘只’字使用의 빈도가 16回나 되지만, ‘只’字를 終聲 ‘ㄱ’으로 해독하여 문맥상 잘못이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는 ‘只’字가 終聲 ‘ㄱ’을 表記하기 위한 借字로 보는 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 三國遺事에 수록된 鄉歌에서 ‘只’字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此地躬捨遣只於多是去於丁(安民)
- ② 他密只嫁良置古(薯童)
- ③ 一筭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禱千)
- ④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兜卒)
- ⑤ 此也友物北所音叱慧叱只有叱故(彗星)
- ⑥ 貞史毛達只將來吞隱日(遇賊)
- ⑦ 阿耶唯只伊吾音之叱恨隱潛陵隱(//)

①의 ‘只’字에 대한 諸家の 견해는 終聲表記 ‘ㄱ’으로 同一하다.

3) 襄大溫, 鄉歌에 쓰인 助詞에 대하여(俞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1984), p. 275.

4) 襄大溫, 朝鮮朝初期의 吏讀助詞研究(螢雪出版社, 1985), p. 31.

②는 ‘지’(梁柱東)로 읽는 경우 외에는 모두 終聲表記 ‘ㄱ’으로 보았다.

③의 경우는 鄉歌全般을 통하여 가장 의견이 분분한 곳이다. ‘티’(梁柱東), ‘디’(金俊榮), ‘지’(徐在克) 등으로 읽었으며, 그 외 ‘只’字를 ‘된’字의 轉訛(金完鎭)로 보았다. 그런데 俞昌均은 ‘一等沙隱 賜以古只 內乎叱等邪’로 分析하여 ‘賜以古只’를 [tsusigok]으로 풀이해서 ‘只’字를 ‘주시고’의 強勢形 ‘주시꼭’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一等沙 陰賜以古只 內乎叱等邪’로 분석하고 ‘隱賜以’를 ‘그시’로 보아 ‘隱賜以古只’을 ‘그시꼭’으로 풀어서 ‘只’字를 역시 終聲 ‘ㄱ’으로 처리하고 있다.⁵⁾

⑤의 경우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츱叱只’를 ‘츱사기’(梁柱東), ‘츱’(金俊榮), 혹은 ‘只’字를 訓讀(金完鎭)한 경우와, ‘빻즈락’(徐在克), ‘츱-s-ki’(俞昌均) 등으로 풀었다. 이는 결국 ‘叱’字를 音借 ‘줄’ 정도로 보면서 ‘只’字를 어대하게 ‘악’으로 본 입장과, ‘츱’字를 漢字 그대로 두고 보려는 입장, 그리고 〈楞嚴經諺解〉의 ‘성와후뽉와논’에서 볼 수 있는 ‘취’음을 취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㉔ 비질악·빻즈락(小倉進平, 徐在克)

㉕ 츱사기(梁柱東, 俞昌均)

㉖ 췌계·취(金善琪, 金俊榮)

㉗의 경우는 借字表記 資料에서 ‘叱’字가 韓國漢字音 ‘줄’로 표기된 예가 없는 듯하고, ‘只’字의 경우는 더욱이나 ‘악’의 소리로 표기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 ㉔㉕의 경우가 그런대로 蓋然性이 있다. 특히 ㉕가 그러하고, ㉖의 경우는 借字表記가 실제 소리를 轉寫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다.

⑥의 경우도 ③⑤와 다찬 가지르 해독이 구구한 편이다. ‘毛達只’에 대하여 ‘모달’로 보고 ‘只’字는 虛字로 처리한 경우(梁柱東)와, ‘只’字를 ‘見’字의 轉訛로 보는 경우(金完鎭), ‘達’字의 訓을 ‘즈라다’로 보아 ‘모즈라’에 強勢接尾辭 ‘ㄱ(只)’이 붙은 ‘모즈락’으로 보는 경우(徐在克), 그리고 역시 ‘只’字를 強勢接尾辭 ‘ㄱ’으로 보고 [modâk]으로 본 경우(俞昌均)가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三國遺事 所載의 鄉歌에서도 均如傳의 경우와 같이 ‘只’字를 ‘ㄱ’으로 읽음에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는 鄉札表記에서

5) 최남희,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弘文閣, 1986), p. 55.

6 嶺南語文學(第13輯)

‘只’字를 의도적으로 終聲 ‘ㄱ’으로 表記하고 있었음을 암시 받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1.3. 다음에는 鄉藥名表記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13세기 자료로 알려진 <鄉藥救急方>을 中心으로 그 후대의 鄉藥名借字表記와 國字表記를 참고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固有名詞로 어떤 측면에서는 鄉札表記보다는 훨씬 擬古性이 강하리라 생각된다.

1.3.1. ‘只’字가 語頭に 쓰인 경우

<鄉藥救急方>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개의 語辭를 얻었다.

◦ 黍 米

a) 只叱(鄉藥 8)

c) 只장밭(簡易2, 53b)(東醫湯1)(濟衆)

기장밭(醫宗)(方藥)

기장·서 : 黍(訓蒙上12b)(類合上10a)(千字28b)

찰기장(才物譜)

기장(物譜)(物名考)

‘黍’에 대한 鄉名表記가 ‘只叱’하나 뿐이라 불안하기는 하지만 ‘只叱’이 ‘기一’을 表記한 것은 틀림없는 듯 하다. ‘黍’을 農書에서도 ‘기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宿乙里黍 : 잘으리기장

走非黍 : 주비기장

達乙伊黍 : 달이기장

猴黍 : 웃기기장

◦ 秬

a) 只火乙(鄉藥中14)

c) 秬기울(簡易6, 8b)

秬기울(東醫湯1, 25a)

기울·부 : 秬(訓蒙中22a)

c)의 語形을 미루어 ‘只火乙’은 ‘기一’을 표기한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나 ‘只’字가 固有名詞表記의 語頭に 쓰이고 있음에 이는 終聲 ‘ㄱ’表記와는 다른 ‘기’表記임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 枳

- a) 只沙里皮：枳殼(鄕藥中14)
只沙伊：枳實(鄕藥6)
- c) 枳樹皮(簡易1, 28a)
枳實(東醫)(濟衆)
枳(才物譜)(物名攷)

a)의 鄕藥名은 c)와는 근본적으로 그 系統을 달리하는 語形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資料로는 무어라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只’字가 語頭に 쓰였고 다음 글자가 역시 初聲子音을 가진 것이므로 ‘只’字는 ‘CV’形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일단 ‘기’소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1.3.2. ‘只’字가 語末에 쓰인 경우

‘只’字가 終聲 ‘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기’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終聲 ‘ㄱ’表記

◦ 木賦

- a) 省只草(鄕藥中23)
省只草(鄕藥6)
- b) 東草(月令3月)(集成79, 50a)
- c) 속새(簡易6, 18)(東醫湯3, 22b)(才物譜)
속새(方藥)(物名考)

a)의 ‘省’字를 b) c)의 語形대로 읽음에 문제가 되겠는데, 이는 ‘省’字가 地名에서 ‘스’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⁶⁾ 즉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省’字가 ‘소’음으로 읽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方言呼省爲所 所或作蘇(增補文獻備考卷14: 2)

이렇듯 ‘省’字를 ‘소’음으로 보면 ‘只’字는 終聲 ‘ㄱ’을 위한 表記로 ‘省只草’를 ‘속새’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같은 ‘새’끝의 식물명은 ‘남새, 솔새, 억새, 박새, 푸새, 남가새’ 등으로 그 용례가 많음에서 더욱 그러

6) 梁柱東, 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43), pp.649~650.

하다.

◦ 楮

- a) 茶只葉：楮葉(鄉藥下5)
 多只：楮葉(鄉藥中12)
 多只：楮實(鄉藥6)
- c) 닥넙：楮葉(救急2, 108a)
 닥나모여름：楮實(東醫)(方藥)
 닥·더：楮(訓蒙上5b, 10b)(類合上9b)
 닥나모(才物譜)

‘茶只, 多只’을 c)의 ‘닥’ 語形으로 미루어 ‘닥’이외의 語形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특히 ‘닥(楮)’이 起源的으로 ‘다기’였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7) 이의 어원을 ‘닥의 나무’에서 찾으려는 의도도⁸⁾ 있으므로 ‘只’字는 終聲 ‘ㄱ’으로 쓰였다고 본다.

◦ 譜

- a) 靑台(鄉藥上1)
 靑苔(鄉藥上12, 9)
 俗云靑乙召只非也(鄉藥上2)
 靑台(鄉藥2)
- b) 靑黛：藍實(月令4月)
 靑黛實(集成78, 17a)
- c) 청딛즙：藍汁(簡易2, 84a)
 청딛：藍(物名考)
 쪽씨：藍實(方藥)
 쪽·남：藍(訓蒙上5a, 9b)(類合上8a)(千字36a)

〈訓蒙字會上9b〉의 註에 ‘俗呼小藍又청딛曰大藍’이란 말과, 〈東醫寶鑑湯2, 43b〉에 ‘靑黛藍爲之 以藍造者 乃入藥’이란 말을 미루어 보면 c)의 ‘청딛, 청딛’類는 借用語인 듯하고, ‘쪽’이 순수 우리말인 듯이 보인다. ‘靑乙召只’을 ‘플쪽’으로 읽음에⁹⁾ c)의 ‘쪽’이란 語形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只’字는 ‘ㄱ’終聲表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7)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檀大 出版部, 1981), p. 114.
 8) 李德鳳,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目研究(亞細亞研究 11號, 1963), p. 196.
 9)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檀大 出版部, 1981), p. 56.

‘기’ 表記

◦ 蚝

- a) 所也只(鄉藥上5)
- b) 衰也只 : 雀甕(月令5月)(村家)
衰也只家 : 雀甕(集成83, 26a)
- c) 소야기 : 雀甕(村家)
쇠야기 : // (東醫湯2, 14b)

◦ 茵蔯蒿

- a) 加火左只(鄉藥2)
- b) 加火老只(月令4月)
加外左只(集成78, 27b)
加外作只(村家)
- c) 가외자기(村家)
더위자기(東醫湯3, 1a)
더위지기(濟衆)(醫宗)(方藥)

◦ 荆芥

- a) ○○汝只(鄉藥下1)
一名 假蘇(鄉藥9)
- b) 鄭芥一名荆芥 : 假蘇(月令無時)
- c) 덩갓이삭 : 荆芥穗(救急2, 65a)

◦ 茺目

- a) 斤次左只(鄉藥下9)

◦ 藿藪

- a) 豆等良品(鄉藥上5)
置等스只(鄉藥中8)
- c) 두드러기 : 藿藪(訓蒙中33b)

◦ 遠志

- a) 非師豆刀草又阿只草(鄉藥2)
- b) 阿只草(月令8月)(集成)(村家)
- c) 아기풀(村家)
아기풀불취(東醫湯2, 42a)(濟衆)(醫宗)(方藥)

◦ 蛇床子

- a) 常食蛇牀茶子：蛇牀子(鄉藥中21)
蛇音置良只菜實(鄉藥2)
- b) 蛇都羅叱·蛇音置良只(月令, 4月)
蛇都羅叱(集成78, 26a)
蛇道乙羅叱(村家)
- c) 비암돌랏(村家)
비암도랏씨(東醫湯2, 48a)(濟衆)(醫宗)(方藥)

◦ 螻蛄

- a) 夫背也只(鄉藥中23)
夫背也只(鄉藥10)
- b) 久音方伊(集成83, 6b)
- c) 굴병이(東醫)(才物譜)(物名攷)(物名考)
굴병이：螻·蛄(訓蒙上21b)

◦ 木串子

- a) 夫背也只木實(鄉藥上16)
夫背也只木實(鄉藥7)
- c) 모관쥬나모겍질：無患子皮(東醫)
모감쥬(才物譜)
모관쥬(物名攷)
모관쥬·환：楸(訓蒙上10b)

위는 모두 ‘只’字를 ‘기’음을 表記한 것으로 보인다.

1.4. 다음에는 傳來하는 吏讀音書에 ‘只’字의 音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참고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吏彙	語錄	吏文	羅麗	便覽	襍例
爲只					항기	
竝只	다모(무)기	아을우지	다모기	다모기	다모기	다모기
役只	격기	격지	겨기	오직·격기	격기	격기
的只	마기	략기	맞가	마기	마기	
始只			비릇		비릇	
題只			계집		겨기	
進只			낫드리		낫드려	
擬只	시기	비기	비집	시기·비기	비기	시기

惟(唯)只	아기·아죽	오직	오직	오직	아덕	아직
最只	안즈기		안치기		아덕기	안직이
歧只					가뢰기	가르기
落只						지기
爲只爲	항기삼(암)				항기암	항기삼
爲巴只	항도(두)룩		항도로나	항도로기	항도로	항도룩
的只乎						마기온
爲白只爲			항습기위	항올기위	항습기암	항습기삼
役只除良				격기더러		
的只乎事	마기온일					
的只臥乎事					마기누온일	

위의 吏讀에 대해서는 語辭마다 구체적인 解明이 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只’字에 대한 傳來讀音이 대체로 ‘기’로 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只’字는 語頭와 그 외의 위치에서 ‘기’音으로도 쓰였고, 終聲 ‘ㄱ’을 위한 表記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